

속초항(북항) 개발에 따른 항만청 부지내 시민휴식공간(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175
----------	-----

발의년월일 : 1993. 7. 19.
발의자 : 윤종구의원외 2인

□ 주문

우리지역은 동해의 푸르름과 병풍처럼 에워쌓인 산이 한데 조화롭게 형성되어 관광도시의 면모를 더해주고 있으며, 도심내 유일한 휴식공간으로는 해안변에 인접해 있는 수복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근에 광활한 바다와 실향민의 애환의 상징물인 수복 기념탑이 자리잡고 있어 북에 고향을 두고온 지역 실향민들에게 향수를 달랠 뿐 아니라 바쁜 일과에 지친 시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어 휴식을 겸한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많은 내방객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예견될 수 있는 북방 교역의 전진기지로 관광선, 상선등의 집단시설 확충을 위하여 항만청에서 속초항(북항) 지역의 매립으로 37,000평의 대단위 항만부지가 조성됨으로써 항만 기능의 여건은 갖추어졌다고 보겠으나,

매립과정에서 수복공원 주위의 바닷가 자연경관이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매립후에는 시멘트 광장이 헝성금으로 노사의 회색화반 가중시키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국제터미널 시설, 콘테이너 액적장등으로 말미암아 항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연관광지로써의 인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수복공원이 기존의 휴식공간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복잡 다양화된 산업사회로 도심지에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민적인 욕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항만 매립부지 조성계획으로 기존의 천혜 자연경관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공원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순한 항만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관광 명소로 조화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다수 시민이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초항(북항) 개발에 따른 매립부지내 지역 관광지 특성을 감안하여 시민 휴식공간(공원) 조성계획이 서둘러 추진되어 관광도시로써 새롭게 변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제안이유

- 항만청에서 추진중인 속초항(북항) 개발계획에 따라 해안 매립으로 대단위 항만부지가 조성되었으나 매립과정에서 기존 수복공원 주위 바닷가 자연경관이 훼손됨으로써 관광지 인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수복공원의 휴식공간 기능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므로, 항만 조성계획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시민 휴식공간(공원) 조성계획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단순한 항만 기능이외에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새롭게 변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임.